

아츠프로펠을 적용한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노 현 지* · 최 진 호**

본 연구의 목적은 아츠프로펠 이론을 바탕으로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방과후 기악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아츠프로펠과 기악교육, 방과 후 교육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3명의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 방과 후 교실에 22차시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효과를 관찰해 보았으며, 연구의 특성상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찰, 자료수집, 분석은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기악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긍정적인 음악적 태도형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아츠프로펠, 방과 후 기악교육, 연주능력, 음악적 태도

차 례

I. 서 론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절차
3. 방과후 기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수업구성 및 차시별 지도계획
5. 자료분석

III. 연구 결과

1. 연주능력
2. 음악적 태도
3. 교사의 반응(연구자의 관찰결과)

IV. 결론 및 제언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전공강의전담교수/교신저자(jhc0028@cau.ac.kr)

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의 생성과 소멸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으며, 지식의 소유보다는 지식의 변형과 재생산을 통한 현실 적용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교육도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습득보다는 이에 대한 적용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과 같은 고등정신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권덕원, 2008). 이러한 흐름은 예술교육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특히 가드너(H. Gardner)와 하버드 프로젝트 연구팀은 바로 이러한 교육적 흐름의 변화를 예술교육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예술교육과정을 인지적 활동차원에서 바라본 아츠프로펠(Art PROPEL)을 개발하였다(Winner, 1992). 이는 그동안의 예술교육이 감성영역에 국한된 것과는 달리, 학생들이 예술교육 가운데 겪는 인지적 과정에 주목하여 음악활동을 의식적으로 지각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며, 나아가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구성한 것이다. 즉, 기존에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직관적 혹은 감성적인 것에 한정시켜 결과만 주목한 반면, 아츠프로펠은 예술을 하나의 상징체계로 규정하고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고 작용에 주목한 것이다(Gardner, ETS, 2007).

이러한 인식변화와 함께 아츠프로펠에서는 학생들이 음악, 미술, 창조적 글쓰기의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Production(창작), Perception(지각), Reflection(반성)이라는 3가지 학습 원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창작은 예술작품을 실제 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며, 지각은 예술작품을 보고 듣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으로 모든 활동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성은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한 학생의 평가로 자신의 작품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기한 학습 원리들은 수업과 평가의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작용하며 나타나게 된다. 이의 구체적인 수업실현을 위해 아츠프로펠은 ‘도메인 프로젝트’라는 학습활동과 ‘과제, 포트폴리오, 반성적 면접’이라는 학습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도메인 프로젝트는 실제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 크게 연주 수업과 일반 음악 수업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이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의 5가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ardner, ETS, 2007).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개인연주’는 악기연주, 노래하기와 같은 연주활동을 중심으로 음악적 능력을 확장시키도록 한 것이며, 다음 두 번째 단계인 ‘앙상블 리허설 비평’은 앙상블 연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는 수업을 말한다.

이때 연주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이후 전략과 계획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평가지가 사용된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양상블 리허설 비교’인데, 이는 시간흐름에 따른 연주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양상블 리허설 섹션 혹은 개인지도’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는 학생들이 이전 단계를 통해 구축한 능력들을 지도능력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양상블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양상블 지도’는 감독자 역할을 학생이 습득할 수 있도록 대표학생이 양상블을 직접 지도하며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러한 아츠프로펠의 교육적 효과가 알려지면서 음악교육에서도 아츠프로펠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는 크게 아츠프로펠에 대한 고찰, 아츠프로펠을 적용한 음악교과 평가방안, 아츠프로펠을 적용한 음악활동 등으로 나누어진다(백승란, 2007). 그 중 아츠프로펠을 적용한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창작, 합창, 합주 등의 수업과정 예시 및 학습도구개발에 관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들은 아츠프로펠을 적용한 학습이 학생들의 음악적 사고력 및 반성능력의 향상과 함께 긍정적 태도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홍정현, 2008).

이처럼 아츠프로펠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를 적용한 방과 후 기악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으로 나타났다(2012년도 현재 RISS 기준, 총 34편 논문 중 3편). 실제로 방과 후 학교는 현재 전체학교의 99.9%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개발을 목표로 하는 만큼 특기·적성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음악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음악프로그램 중에서도 기악수업이 8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기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하지만 현재 방과 후 기악수업은 대부분 악기연주기술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포괄적인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또한 제재 곡 중심의 단편적인 수업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흥미를 높이고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에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상래, 2004). 특히 악기연주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교사중심의 개인지도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학생 1명당 레슨시간은 고작 10여분에 불과하며, 다양한 음악적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음악적 인지력, 반성적 사고력 향상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개인지도는 교사의 지식과 기술을 직접 전수해주는 형태로 섬세한 지도가

필요한 기악교육에 적합하나, 방과 후 학교에서의 지나친 개인지도중심수업은 교사의존도를 높여 주관적인 음악해석력, 사고력, 판단력 형성을 방해하고, 지속적인 동기와 흥미유발에도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이혜란, 2007). 반면, 방과 후 학교의 그룹지도는 악곡분석 및 해석, 창작에 대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더불어 협동심,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합주를 통해 전시학습에서 배운 연주기술과 음악적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며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악활동을 학생 스스로 인지하게 하여 지각, 반성의 단계를 거치게 하는 아츠프로펠을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방과 후 기악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츠프로펠 이론을 바탕으로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방과 후 기악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K초등학교의 방과 후 바이올린 부 2학년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아츠프로펠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을 기악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아츠프로펠 연구의 특성상 창작, 지각, 반성을 바탕으로 이뤄진 프로세스 폴리오의 자료는 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방법, 연구절차, 그리고 자료수집 등이 주관적이고, 연구절차에 기본적인 틀이 없는 총체적 연구라는 점에서 양적연구와 차이가 있다(Creswell, 2010). 또한 양적연구에서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대표성을 갖는 많은 수의 표본을 필요로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특정현상이나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표본을 심층적으로 연구”(성태제, 시기자, 2010, p. 32)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방과 후 학교를 통해 매주 2회씩 바이올린을 배워왔으며 진도는 모두 동일하였다. 하지만 연주 실력과 흥미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동일한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음악적 경험이나 배경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10년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총 22차시의 수업으로 이뤄졌다. 수업을 실제로 진행한 교사는 본 프로그램의 연구자로 바이올린을 전공하였으며 7년의 악기지도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중요한 도구가 되며, 연구절차나 방법이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성태제, 시기자, 2010, p. 3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경험과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기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직접 가르치며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아츠프로펠과 기악교육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사(트라이앵글레이션)를 위해서 음악교육전공 교수, 초등학교 음악교사, 방과 후 기악 강사로 구성된 3명의 전문가에게 타당도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결과, 본 프로그램이 아츠프로펠의 원리를 잘 반영하였으며, 수업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주었다. 연구대상은 질적 연구표집방법에 따라 연구자가 지도한 경험이 있는 방과 후 바이올린 부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연구대상에 대한 배경조사와 초등학교 2학년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학습도구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찰, 자료수집,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이뤄졌다.

3.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연주, 그룹연주, 기악합주를 각각 하나의 section으로 하여 총 3개의 section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인 ▶ 그룹 ▶ 합주로 확대되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하였다. 아츠프로펠의 연주도메인은 각 section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으며, 수업 시, 교사가 각 단계에서 강조되는 도메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section별 기간 및 교수-학습내용은 학

습자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도구들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른 본 기악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ection I. 개인연주 프로그램

개인연주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연주능력향상을 목표로 하며 본 단계의 학습이 다음 Section으로 나아가며 심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개별학습 ▶ 공개레슨 ▶ 리허설 ▶ 연주’로 구성된다. 먼저 ‘개별학습’은 활동지를 통해 주제중심의 음악개념과 연주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다양한 악곡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 중 당면한 음악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음악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주비평지와 평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업이후에는 음악일지를 통해 수업전반에 대한 반성과 교사와의 부족한 상호작용을 돕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공개레슨’은 전 단계의 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개적인 지도가 이뤄지는 것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의 학습효과를 기대하였다. 우선 지도받는 학생은 수업을 대비한 보다 충실한 연습으로 연주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관 학생은 동료의 레슨을 보며 음악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연주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리허설’은 피아노반주에 맞춰 실제 연주를 준비하는 단계로 이전까지는 본인의 연주에만 집중한 반면, 이 단계에서는 다른 악기와 호흡을 맞추며 음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였다<표 1>.

<표 1> 개인연주 프로그램

단계		학습활동	프로세스 폴리오	도메인
1	개별 학습	• 배경질문지작성 및 동료인터뷰 • 음악요소 및 악기기술습득 • 개인연주비평	• 배경질문지 • 연주비평지 • 음악일지	도메인 1,2
2	공개 레슨	• 공개레슨 • 공개레슨비평(본인/동료)	• 공개레슨비평지 • 음악일지	도메인 1,2
3	리허 설	• 반주에 맞춰 리허설 진행 • 리허설 비평 및 비교	• 연주비평지 · 음악일지 • 리허설녹음음원	도메인 1,3
4	연주	• 개인연주 • 연주비평(본인/동료) • 연주평가회	• 연주동영상 • 연주비평지 • 음악일지	도메인 1,2,4

• Section II. 그룹연주 프로그램

그룹연주 프로그램은 그룹별 악곡해석과 창작활동을 통해 이전의 학습을 확장

시켜 가는 단계이다. 본 Section II 에서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음악적 수행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협동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의 반성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음악적 문제로 활동을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은 그룹토의 ▶연습 ▶리허설 ▶연주로 구성되었다.

첫 단계인 그룹토의는 크게 그룹구성과 악곡분석으로 이뤄진다. 먼저 그룹구성에서는 리더선출과 역할분담을 하게 되고, 악곡분석에서는 연주곡 선택 및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학습대상의 수준에 따라 악곡분석 기준을 달리 제시해주는 것과 악곡분석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 음악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악곡을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이 진행되는데, 개인연습에서는 부족한 연주기술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그룹지도에서는 연주비평지를 중심으로 한 동료지도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리허설’은 그룹리더의 감독아래 연주회에 대한 결정과 최종점검이 이뤄지는 단계이다. 이 때 교사는 그룹리더와의 면담을 수시로 가지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룹연주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그룹연주’에서는 학생들의 축적된 학습이 연주를 통해 드러나는 단계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그룹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주 후에는 평가회를 통해 본인과 다른 그룹의 연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표 2>.

<표 2> 그룹연주 프로그램

단 계	학습활동	프로세스 폴리오	도메인
1	그룹 토의 · 리더 선출 및 역할분담 · 악곡 분석 · 향후일정수립	· 회의록 · 음악일지 · 악곡분석지	도메인 4
2	연습 · 개인 및 그룹 연습 · 그룹레슨	· 연주비평지 · 음악일지	도메인 1,2,4
3	리허 설 · 리허설 진행 · 리허설 비평 및 비교	· 연주비평지 · 음악일지	도메인 1,3,4
4	연주 · 그룹연주 · 연주평가회	· 연주동영상 · 음악일지 · 평가회 기록	도메인 1,2,5

• Section III. 기악합주 프로그램

기악합주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로 이전의 활동들이 확장된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진 학습과정을 통해 다져진 연주능력과 악곡 해석 및 연주비평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보다 확장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악장과 파트장들은 구체적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악합주 프로그램은 전체회의 연습 리허설 연주의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인 ‘전체회의’는 합주단의 틀을 갖추고 앞으로의 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악장과 파트장 선출 및 향후 일정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다음 단계인 ‘연습’에서는 악곡분석을 바탕으로 파트연습과 전체연습으로 진행되며, 연습의 첫 시간에 모두 모여 악곡에 대한 분석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연주할 곡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후에도 교사, 지휘자, 악장, 파트장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동일한 음악적 해석아래 연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주가운데 일어나는 음악적 문제들은 연주비평지와 음악일지를 사용하여 문제해결을 돕고자 하였다.

그 다음 단계는 실제 연주에 앞서 ‘전체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주에 필요한 무대 셋팅, 연주회 포스터, 초청장, 의상 등을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연주준비를 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연주’는 친구들과 교사, 학부모들을 초청한 가운데 연주회를 열도록 하였다. 연주가 끝난 후에는 평가회를 가지고, 다음 연주회를 위한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표 3>.

<표 3> 기악합주 프로그램

단계	학습활동	프로세스 폴리오	도메인
1 회의	· 파트회의:파트장선출 및 일정수립 · 전체회의:악장선출 및 연주회계획수립	· 파트 및 전체 회의록 · 연습일정표	도메인 4,5
2 연습	· 악곡 감상 및 분석 · 파트 및 전체연습(동료지도) · 연주비평(개인/파트/전체)	· 연주비평지 (개인/파트/전체)	도메인 1,2,3,4
3 리허설	· 리허설 비평 및 비교 · 리허설 진행(악장)	· 합주리허설 · 연주비평지	도메인 4,5
4 연주	· 합주연주 · 연주비평 · 연주평가회	· 동영상 · 연주비평지 · 평가회 기록	도메인 1,5

• 프로세스 폴리오 개발

본 기악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의식적으로 음악을 지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폴리오를 중심의 작품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프로세스 폴리오개발을 위해 Arts PROPLE : A Handbook for Music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Winner & Scripp, 1992).

먼저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인지하고 평가함으로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학습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생님과 동료 간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대상인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내용과 표현으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발된 프로세스 폴리오는 크게 질문지, 동료인터뷰지, 활동지(개인, 그룹), 평가지, 비평지, 음악일지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질문지는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은 본인과 동료의 음악경험들을 나누고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4>. 다음으로 활동지는 음악개념과 연주기술을 다양한 활동과 결합시켜 구성함으로 수업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의 음악적 능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표 5>, 평가지 및 연주비평지는 실용중심의 문제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정리 및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표 6>, <표 7>. 또한 음악일지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궁금증, 어려움들로 구성하여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을 높이는 동시에 교사에게는 학생의 학습과악을 돕도록 하였다<표 8>.

<표 4> 배경 인터뷰

나 는 작 은 음 악 가		
년 월 일	학년 반	이름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1.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 왜냐하면		
2. 새로운 노래나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		
3. 나는 음악 활동 중에서(음악듣기,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기타:)를 좋아한다.		
-		
4. 나는 악기 중에서 () 배우는 것이 가장 즐겁다.		
-		
● 다음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5. 지금까지 배웠던 악기는 무엇인가요? - 얼마나 배웠나요?		
6. 가족들은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나요?		
7.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노래나 연주를 한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요)		
('예' 일 경우만 답하세요)		
- 노래나 연주를 할 때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8. 방과후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과후 바이올린 수업에서 좋은 점, 힘든점은 무엇인가요?		

즐거운 바이올린 수업			
년	월	일	이름

• 3/4박자의 다양한 리듬을 함께 배워요.

1. 3/4박자란?

2. 다양한 3박자의 리듬을 박수로 쳐보자.

- 다음 리듬을 바이올린 A현과 E현, D현에서 표현해보자.

3. 친구와 함께 리듬연습을 해보자.

다시 한 번 음악나라토~

년 월 일	교실	연주곡
-------	----	-----

1. 리듬을 듣고 알맞은 것을 그르세요.
 ♪ ♩ ♫ ♪ ♩ ♪ ♩ ♪ ♩ ♪ ♩ ♪ ♩

2. 리듬을 듣고 빈 칸에 알맞은 리듬을 그려 넣으세요.
 ♪ ♩ ♩ ♩ ♩ ♩ ♩ ♩ [] ♩ ♩ ♩ ♩

3. 바이올린 손가락 짚는 위치가 같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4. 다음 리듬표를 이용해 3/4박자, 4마디의 리듬을 만드세요.
 ♪ ♩

5. 친구와 함께 서로 만든 리듬을 박수로 쳐보세요.

<표 7> 연주비평지

나 의 연 주				
년 월 일	이름	연주곡		
● 오늘 자신의 연주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문 항		Yes	No	나의 연주?
1	바른 자세로 연주했나요?			
2	3/4박 느낌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었나요?			
3	 의 리듬을 바르게 연주했나요?			
4	♩, V, 제대로 지정서 연주했나요?			
5	파#과 도(♯, #)를 바르게 짚었나요?			

우 리 의 연 주			
년 월 일	팀원	연주곡	
문 항			
1	바른 자세(악기들기, 왼손모양, 허리펴기, 팔 쥐기)로 연주했나요?		
2	친구와 악자가 잘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악보에 표시하기)		
3	친구와 음정이 잘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악보에 표시하기)		
4	내림활과 올림활을 악보대로 바르게 했나요?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악보에 표시하기)		
5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의 소리크기가 비슷한가요? 혹시 한 명이 너무 크게 내지는 않나요?		

<표 8> 음악일지

나 의 음 악 일 기		
년 월 일	이름	제재곡
● 오늘 수업에서 새로 배우거나 연습한 부분을 쓰세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느낀 점을 쓰세요.		● 자신에게 어렵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할 건가요?
● 스스로 잘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친구와 잘 맞는 점과 <u>어려운점</u>은 무엇인가요?		
●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u>쓰세요</u> ^^		

4. 수업구성 및 차시별 지도계획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 기악교육프로그램의 수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악기연주기술이 미숙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연주프로그램을

총 22차시 중 10차시로 구성하여 연주기술증진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아츠프로펠보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향상을 강조하며 개인-그룹-합주를 통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평수업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말이나 글을 비롯해 그림, 몸짓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악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본 초등학교 2학년 바이올린 수업의 구체적인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의 주제는 ‘3/4박자’이며 제재곡으로는 “J. S. Bach의 미뉴에트 3번”, “Brams의 왈츠 15번”, 멕시코 민요인 “라쿠카라차”로 구성하였다. 선정기준은 주제와 선수학습, 악곡특징을 고려하여 3/4박자, 사장조 악곡 중에서 선택하였다. 본 기악교육 프로그램의 Section I.에서는 미뉴에트 3번과 왈츠를 중심으로 3/4박자의 다양한 리듬, 사장조의 음계와 운지, 춤곡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Section II에서는 전시학습을 바탕으로 라쿠카라차의 악곡 분석과 연주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Section.III에서는 미뉴에트 3번곡을 기악합주활동으로 다시 제시하여 연주형태에 따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의 주제와 구성내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총 22차시의 수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업계획안은 다음과 같다<표 9>.

<표 9> 차시별 지도계획

Section I. 개 인 연 주 프 로 그 램					
단계	차시	학습목표	학습활동	학습요소	제재곡
개 별 학 습	1	▶아츠 프로펠을 이해하고 본인과 동료의 음악적 배경을 말할 수 있다.	• 아츠 프로펠 소개 • 배경질문지작성 • 동료인터뷰 • 본인과 동료의 음악적 배경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	•아츠 프로펠 •인터뷰	
	2 3	▶3/4박자의 다양한 리듬을 신체와 악기로 표현할 수 있다. ▶3/4박자의 다양한 리듬과 정확한 음정을 인지하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 춤곡 설명 및 동영상 감상 • 3/4박자의 다양한 리듬 표현(신체→악기) • F#,F#,C#,C#의 음높이 인지→악기운지(D선, A선) • 계명창부르기 • 악곡 분석 • 자기 비평지작성 및 평가	•3/4박자 다양한리듬 표현 •슬러·보잉 • F # / C # 음 및 운지법	•활동지1 •미뉴에트 제 3번
	4	▶레가토, 스타카토, 썸머를 살려 연주할 있다.	• 사장조 음계연습 • 스타카토, 썸머의 표현익히기(신체→악기) • 음악요소생각하며 감상	•사장조 •스타카토 •썸머	•활동지2 •미뉴에트 제 3번
	5	▶곡의 형식을 이해하고 흐름을 살려 연주할 수 있다.	• 3부 형식 배우기 • 곡 흐름 익히기 • 개인연주비평지 작성 및 평가	•3부형식 •작은악절	•활동지3 •미뉴에트 제 3번
	6 7	▶정확한 리듬과 음정으로 연주할 수 있다. ▶악상과 흐름을 살려 연주 할 수 있다.	• 제재곡 설명 및 감상 • 계명창 부르기 • 크레센도의 표현(신체→악기) • 개인연주비평지작성 및 평가	•계명창 •슬러 •스타카토 •크레센도	•활동지 4,5 •왈츠

공개레슨	8	▶공개레슨을 통해 본인 과 친구의 연주를 평가할 수 있다.	• 공개레슨에 대한 설명 • 순서대로 공개레슨진행 • 연주비평지작성(개인/동료)	• 공개레슨 • 연주비평	• 미뉴에트/왈츠 중 본인선택
리허설	9	▶피아노반주에 맞춰 연주하고 연주를 비 평, 비교할 수 있다.	• 리허설 설명 • 피아노 반주에 맞추기 • 비평지 작성 및 연주비교	• 반주 • 연주비평 • 연주비교	• 제재곡 중 택 1
연주	10	▶연주를 하고 본인과 동료의 연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 개인 연주 • 연주 비평지 작성 • 연주 평가회 실시	• 연주 • 연주비평	• 제재곡 중 택 1

Section II. 그룹 연주 프로그램

그룹 토의	11	▶리더선출과 연습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악곡을 분석하고 다 양한 관점에서 이야 기할 수 있다.	• 그룹연주 프로그램 소개 • 리더선출 및 연습계획 수립 • 제재곡 설명 및 감상 • 악곡분석 및 토론 • 음악적 요소의 재배치	• 민요이해 • 조성,박자, 리듬,형식 • 악곡해석	•라쿠카리차
연습	12 13	▶동료연주를 듣고 틀 린 부분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다.	• 개인별/그룹별 제재곡 연습 • 동료지도 • 개인연주비평지 작성	• 8분음표 활쓰기 • 연주비평	"
리허설	14	▶그룹리허설을 진 행하고 비평, 비교 할 수 있다.	• 그룹별 리허설 진행 • 그룹연주 비평(전차시와비교) • 그룹연주비평지 작성	• 연주비평 • 연주비교	"
연주	15	▶그룹연주를 하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룹연주 및 비평지작성 • 연주 평가회 실시	• 연주 • 연주비평	"

Section III. 기 악 합 주 프로그램

회의	16	▶파트장과 악장을 선출하고 연주회 의 방향과 일정을 정할 수 있다.	• 파트장 및 악장 선출 • 연주회 및 전체 일정 계획 • 파트별로 연습방향 정하기 • 4성부 미뉴에트 감상	• 회의 • 감상	•미뉴에트 3번(4성부) •라쿠카리차
연습	17 18	▶동료와 호흡을 맞 춰 제재곡을 연주 할 수 있다.	• 아티클레이션 표현하기 • 동료지도 • 그룹연주비평지작성	•박자, 음정 • 아티클 레 이션	"
	19 20	▶다른 악기소리에 맞 춰 연주할 수 있다.	• 아티클레이션 표현하기 • 악장,파트장,교사와 대화	•아티클레이 션 •성부어울림	"
리허설	21	▶최종 리허설을 진 행할 수 있다.	• 리허설 연습 • 연주회를 위한 최종 점검	• 무대셋팅 • 리허설	"
연주	22	▶예술제에서멋진 연 주를 할 수 있다. ▶연주소감을 나누고 평가할 수 있다.	• 연주 발표회 • 소감발표 및 연주평가 • 본 연구수업의 소감나누기 • 기악교육프로그램 자료정리	• 연주 • 평가 • 자료정리	"

5. 자료분석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의 다양한 자료수집형태 중, 크리스웰(Creswell, 2010)이 구분하고 있는 “기본적인 4가지 형태, 즉 관찰, 면접, 문서, 시청각자료”(p.18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수업을 직접 진행

하면서 수업현장을 관찰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반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자연스레 이끌어 냈다. 이는 특히 본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어린 학생들의 학습이해정도와 소감과악에 유용하였다. 셋째, 교사의 일지, 학생의 음악일기, 수업활동지, 수업평가지, 인터뷰지 등을 중심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수집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촬영하여 연구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연주 촬영 분은 수업자료로 다시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질적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관찰(교사일지 및 기록물), 면접, 문서(활동지, 평가지, 질문지, 비평지, 악보, 음악일기), 시청각 자료(수업동영상, 연주동영상)의 형태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목적인 연주능력과 음악적 태도로 분류하는 코딩(Coding Segments)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주능력의 요인은 리듬, 음정, 표현, 보잉, 호흡으로, 음악적 태도는 흥미, 태도, 가치화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에 맞춰 다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일지와 기록물, 수업 동영상, 학생들의 프로세스 폴리오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관찰한 자료를 크게 기악교육 프로그램과 학생에 대한 느낌들로 나누어 다시 한 번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주능력

연주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주능력에 관한 학생들의 자료내용을 코딩해 본 결과, 리듬, 음정, 표현, 보잉, 호흡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표 10>.

<표 10> 연주능력요인의 내용

연 주 능 력	내 용
리 듦	· 3/4박자의 다양한 리듬
음 정	· 사장조의 음계(올림 ‘사’) · 임시표(올림 ‘다’)
표 현	· 스타카토, 레가토의 표현 · 셈여림의 표현
보 잉	· 올림활, 내림활, 슬러
호 흡	· 피아노, 그룹, 합주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음악적 지각력, 반성적 사고능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연주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생들은 ‘리듬’과 ‘음정’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연구 초반에 리듬과 음정에 정확성이 떨어지던 학생들이 ‘춤곡에 맞춰 걷기, 리듬 만들기, 계명 창’등의 활동으로 리듬과 음정을 익히고 난후, 보다 정확하게 이를 악기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악곡연습이 시작되자, 여러 음악적 요인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다소 미숙했으나 몇 차례의 연주비평, 공개레슨을 통해 다시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전에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걷는 거랑 박수치기 하니깐 도움되요. 배운 리듬이 다시 악보로 나오니 너무 쉽고 바로바로 알겠어요.”

“연주비평지에서 리듬이랑 음정 물어보니까 신경 써서 하게 되요.”

“제가 음정 맞게 내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자꾸 틀렸다고 해서 싫었는데, 친구들이랑 제 연주 다시 들어보니까 틀린 줄 알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리듬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해보도록 했다. 아이들에 더 이상 낮은 리듬이 아닌 익숙하고 친숙한 리듬이 되어있었다.” <교사>

학생들은 그룹연주와 합주수업에서 서로의 연주를 듣고 평가하며 슬러 스타카토, 악상과 같은 음악적 표현을 맞추어 나갔다. 특히 보잉교정은 교사의 티칭보다는 그룹연주를 통한 학습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혼자 할 땐, 슬러 스타카토 쉬웠는데 같이 하니깐 소리가 이상해요. 선생님이 친구의 연주를 들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잘 맞았어요.”

“처음에는 크게 내고 중간에 피아노 나오는 부분은 작게 냈는데 연주를 다시 들으니깐 똑같이 들린다. 더 많이 해야겠다.”

“보잉을 신경 쓰지 않던 학생들이 합주를 통해 스스로 맞추려고 노력한다.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다.” <교사>

Section. I의 리허설에서 학생들의 실력 차는 컸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반주를 듣고 맞추는 학생이 있는 반면, 아예 무시하고 연주하기도 했다. 이는 그룹연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재곡이 익숙해지고 꾸준한 연주비평을 통해 점차 동료의 연주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합주 첫 시간임에도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듣고 맞추려는 모습으로 이어졌으며, 피아노 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던 학생들이, 다른 악기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처음엔 피아노나 친구랑 같이 하는 게 힘들었어요. 혼자 하는 게 더 쉬웠는데 자꾸 하다보니깐 이제는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음악일지와 그룹 활동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의 변화를 잘 보여주었다. 연구 초반에는 “열심히 연습하겠다.”와 같이 단순히 사고하던 학생들이 수업의 연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룹연주에서도 선생님만 의존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동료지도와 평가활동을 하게 되었다. 또한 연주비평과 평가활동은 학생의 반성적 사고력을 향상시켰다. 연구 초반에는 “연주를 잘한다.” 혹은 “멧돼지처럼 연주한다.”와 같은 일차원적 생각이 지속적인 비평과 평가활동으로 음악적 기준을 정립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

“중간에 친구와 음정이 안 맞고 박자가 처음보다 느려졌다.”
“내 연주는 파 #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슬리는 맞게 했다.”

2. 음악적 태도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태도를 살펴본 결과, 크게 흥미, 태도, 가치화로 나눌 수 있었다. 학생들의 반응을 다시 위의 기준에 따라 코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11>.

<표 11> 음악적 태도의 영역별 내용

영역	내용
흥미	• 친구와 함께 하는 음악활동이 즐겁다.
	• 연주를 하는 것이 좋다.
	• 바이올린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태도	•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 바이올린 연주에 자신이 있다.
가치화	• 음악가가 되고 싶다.
	• 음악을 자주 듣게 되었다.
	• 악기연주는 의미 있는 일이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동기나 흥미정도가 상이한 학생들을 동시에 수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활동을 즐겁게 여기며 흥미가 증가되었고 악기연주에 대한 거부감도 감소되었다. 특히 부모님의 강요로 수업을

듣던 학생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룹보다 개인연주를 선호하던 학생들이 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여나갔다.

“옛날엔 바이올린 할 때 또 새로운 거 배우면 힘들어서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하니깐 쉽고 재밌어요.”

“○○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같은 팀이 돼서 같이 연주하면서 많이 친해지게 돼서 좋아요. 바이올린 하는 것도 이제 좋아요.”

연주에 대한 인식변화도 두드러졌다. 거듭된 연주를 통해 학생들의 연주태도는 보다 성숙해졌으며, 특히 부모님을 초청한 예술제를 통해 연주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느낀 동시에 성취감과 즐거움 또한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 시켜서 연주할 때마다 떨렸는데,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자주 연주해보니깐 이제는 별로 어렵지도 않고 연주하는 게 편해요.”

“선생님, 저희 안 틀렸어요? 잘했어요? 또 올라가서 하고 싶어요!”

음악에 대한 흥미는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변화시켰다. 새로운 학습에 부담을 느끼던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악기연주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뀌어갔다. 또한 음악일지의 사용은 수업이후에도 학습을 지속시켜 주었다. 동료와의 음악활동,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발전하는 실력, 칭찬들이 함께 어우러져 학생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리듬 만들기 하나 더 해도 돼요?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선생님, 왜 이거(올림표 붙은 음표를 가리키며)는 꼭 더 높게 짚어야 되요? 이거 땀에 헛갈리구 자꾸 틀려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집에서 연습 안 했는데요, 음악일지 쓰면서 연습하게 되요.”

악기연주에 대한 자신감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늘 못한다고 말하며 쩡그리던 학생의 표정이 밝아지고 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변화된 태도는 음악적 삶으로 이어졌다. 음악을 찾아서 듣고, 음악회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연주자를 꿈꾸기도 했다.

“어제 엄마랑 장영주 연주회 갔어요. 정말 잘해요. 근데 쉬는 시간 지나고는 계속 잤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갈 거예요.”

“나중에 바이올린 연주자 되고 싶어요. 선생님도 되고 싶긴 한데 지금은 바이올린

이 더 좋으니깐 연주자 할래요.”

“예전에는 음악별로 안 듣고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자주 들어요. 엄마한테 찾아서
틀어 달라고 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음악적 태도는 연구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학년 학생에게 바이올린이란 어려운 악기이지만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음악적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3. 교사의 반응(연구자의 관찰결과)

연구자이자 교사로서 본 기악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느끼고 관찰한 내용은 연구일지, 수업동영상, 프로세스 폴리오와 같은 증거자료로 기록해 두었고 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적인 수업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인지과정과 문제해결능력의 발달과정, 그리고 학생이 수업시간에 겪는 어려움까지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의 특성가운데 하나인 학생과의 많은 상호작용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가시켜 준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룹연주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소통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동료지도는 학생들에게 실력향상으로 인한 만족감과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고, 교사의 지도와는 다른 차원의 학습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감정기록이 심하고 바이올린을 좋아하지 않는 ○○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자 수업태도의 변화와 함께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그 아이를 통해 교사의 역할이 수업 그 이상임을 알게 되었다.”

“리듬 만들기 수업에서 평소 연주실력이 좋은 학생들의 리듬은 형식적인 반면, 연주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의 리듬이 창의적이었다. 이를 보며 연주실력과 창의력이 꼭 비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세스 폴리오는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좋은 수업을 생각하게 한다. 그 과정은 학생에 대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다.”

“수업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운 건 바로 교사인 ‘나’ 자신이다. 처음엔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가운데 학생들을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은 나에게 값진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츠프로펠 이론을 바탕으로 방과후 기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초등학교 방과후 바이올린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아츠프로펠과 기악교육,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3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여 본 기악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받았다. 또한 제작된 프로그램의 실효성 검사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 바이올린 교실에 22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태도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활동중심의 음악적 개념학습은 학생들의 연주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리듬과 음정의 개념이 없던 학생들이 이후에는 바르게 인지하고 연주할 뿐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간단한 창작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아노 연주능력과 음악 개념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밝힌 유수진(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활동중심의 음악적 개념학습이 학생의 연주능력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본 기악교육 프로그램에서 음악적 개념을 다양한 활동가운데 이해하고 연주하고 창작하도록 설계한 것은 학생의 음악적 이해력을 높이고 보다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전반에 걸쳐 강조한 동료 및 교사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발전시켰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개인연주보다 그룹연주에서 보다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창의적이고 완성도 있는 학습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음악일지를 통한 음악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가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동료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각, 학습계획, 감독, 평가하는 반성적 능력을 확대시켜 간다고 한 황순희(2001)의 연구와 동일한 것으로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방과 후 기악교육에서는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수업과 동료지도, 그룹지도를 병행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일지를 사용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학생의 학습에서 일어나는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셋째, 그룹연주 및 기악합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협동심을 기르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 그룹연주 프로그램에서 동료들과 함께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동료에 대한 이해와 관계도 친밀해졌다. 이는 홍종현(2007)의 연구에서 모듈학습이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습에 대한 책임감,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주었음을 밝힌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넷째, 학생들의 연주능력의 향상은 아이들의 긍정적인 음악적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악기연주에 대해 흥미가 없던 학생들이 연주 능력이 향상되자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주활동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게 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남지영(2007)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연주능력과 음악적 태도가 서로 상관이 있음을 밝힌 결과와도 동일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연주능력은 단순히 악기연주기술만이 아닌, 악곡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신의 연주와 다른 사람의 연주를 비평할 줄 알고, 음악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가 방과 후 기악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힘쓰는 일선 음악교사와 방과 후 지도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 방과후 학교 현황분석**.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8).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상래 (2004).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실에서 효과적인 그룹 바이올린 교수-학습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지영 (2007). **멘토링 활동이 초등학교생의 리코더 연주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승란 (2007). **아츠프로젝트의 연주 도메인 프로젝트를 적용한 중학교 기악 합주수업**.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 시기자 (2010).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유수진 (2007). **피아노 연주능력과 음악 개념 성취도의 관계연구**. 전주교육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이혜란 (2007). **그룹 피아노지도에 관한 연구 : 역사와 교본을 중심으로**. 대전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흥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황순희 (2001). **Arts PROPEL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 모형개발**. 교육 논총 제 17권.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홍종현 (2007). **Arts PROPEL을 적용한 리코더 합주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 연구 제 32권. 한국음악교육학회.

Gardner, H., ETS. (2007). **예술교과에서의 수업설계와 평가**. 김명희·윤쌍웅 (역). 서울: 문음사.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2판.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Winner, E., Davidson, L. & Scripp, L. (1992). *Arts PROPEL: A Handbook for Music*, Cambridge, Educational Testing Service and the Present and Fellow of Harvard College.

ABSTRACT

After-School Program for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Based on Arts PROPEL

Noh, Hyun Jee · Choi, Jin-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fter-school music program for instrumental education based on Arts PROPEL in an elementary school and see how this program influences their musical abilities and attitudes. Based on Arts PROPEL, an after-school program, a series of 22 times for instrumental education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an actual after-school site in order to observe the influence of this program on the performance skills and attitudes toward music of childre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formance levels of children were improved by this program that suggested a process of individual performances, group performances, instrumental ensemble. Secondly, the enhancement in the performance levels of the students played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musical attitudes of children. Lastly, it was identified that the Arts PROPEL process, the creation, perception, reflection, influenced on the students' overall musical performance and led to their positive musical attitude.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 were provided for music teachers and after-school providers.

key words : Arts PROPEL, After-School Music Program, Instrumental Music

투고일: 2012년 12월 31일, 심사(수정): 1월 31일(2월 15일), 게재 확정일: 2월 20일